

2010 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27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룻의 예표
(2)

성경: 룻 1:16-17, 2:2, 11-12, 4:9-13, 롬 6:6, 7:1-4, 갈 2:19-20

I. 룻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신분을 예표하는 룻에 관한 여섯 가지 신분이 있다.

- A. 출생에 의해 그 권리를 가진 타고난 사람의 신분을 지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룻은 타고난 사람으로서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 B. 타락한 사람—근친상간의 종족의 후손인 모압 여자—으로서의 그녀의 신분에 의해 룻은 그 모든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 C. 빛진 옛 남편의 아내로서, 즉 죄에 연루되고 죄로 인해 빛진 사람의 신분으로서 룻은 옛사람으로서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 1. 우리는 결코 모압 여자인 룻과 그녀의 남편을 두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 2. 성경 전체의 관점에 의하면, 로마서 7 장에 있는 남편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옛사람을 가리킨다—롬 6:6, 7:1-4.
 - 3. 옛사람으로서 우리는 남편이었고, 새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내이다.
 - 4. 옛사람은 타락한 사람과 타고난 사람으로 구성된다.
 - 5. 타락한 사람은 죄에 연루되고 죄로 인해 빛졌지만, 타고난 사람은 선하며,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한다—19, 21 절.
- D. 친족에 의해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지닌 룻은 옛사람의 타락된 부분이 십자가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하나님께 다시 구속되어 죄의 모든 빛이 청산되고 장자권이 회복된 사람들로서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갈 2:19-20.
- E. 결혼함으로 결합하여 보아스의 아내의 신분을 지닌 룻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새사람의 일부인 하나님의 새 창조 안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 F.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낳고 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의 신분을 지닌 룻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져다주고 제시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널리 편만하게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의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 G.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예표로서 룻은 타고난 사람, 타락된 사람, 죄에 연루된 사람, 구속된 사람, 새 남편과 결합된 사람,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II. 사사기와 룻기는 양면—능력의 영 안에서 움직이심과 생명의 영 안에서 움직이심—을 지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A. 삼손은 생명의 영 아닌 능력의 영 안에서 움직인 사람에 대한 전형적인 예이다.
 - 1.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삿 13:25, 14:6, 19). 그에게 실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그의 육체의 정욕을 제한할 줄을 몰랐다.

3. 그에게는 능력이 충만했고, 정욕도 가득했다. 이것은 그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사기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생명에 속한 것은 전혀 없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쳐짐을 가리킨다.
- B. 다른 사사들도 정욕의 방탕을 통제하지 않았다.
1.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한 명의 첩에게서 난 칠십일 명의 아들이 있었다—8:30-31, 9:5.
 2. 야일에게는 삼십 명의 아들이 있었다—10:3-4.
 3. 입산에게는 삼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딸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타국에서 삼십 명의 며느리들을 데려왔다—12:8-9.
 4. 압돈은 사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손자를 두었다—12:13-14.
- C. 나오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스르지 않고 생명 안에서 움직였다.
1.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경외했다.
 2. 나오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안식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누리는데 다시 참여했다—룻 1:6.
 3. 나오미는 자기의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을 격려했다—1:13, 20, 3:1
 4. 나오미는 믿음 안에서 행했고,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전에는 안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었다—3:18.
 5. 나오미는 오벳의 양모가 되었다—4:16-17.
- D.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접근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움직였다.
1. 룻은 영원히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원했으며, 가난 속에서도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1:16-18.
 2.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2:11, 비교 살전 1:8.
 3. 룻은 열심히 일했다—룻 2:17.
 4. 룻은 모든 일에 나오미에게 순종했다—3:5
 5.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4:5, 레 25:25, 신 25:5-10).
- E. 보아스는 룻을 접촉할 때 생명 안에서 움직였다.
1. 보아스는 절대적으로 제한받았고 그의 정욕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룻 3:7-15.
 2.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기꺼이 그의 책임을 다하기 원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다—12-13 절.
 3. 보아스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합법적이었고, 그가 합법적이었던 것은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생명에 근거했다.
- F. 오직 생명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 오직 생명만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느다란 노선을 유지하는 계보를 지킬 수 있다.